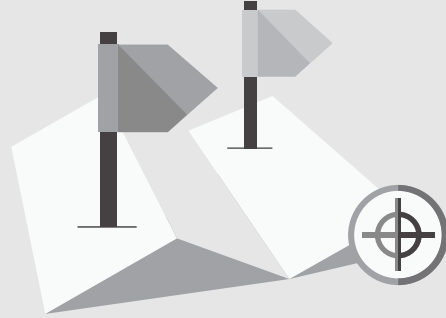


이달의 초점

가족, 세대,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



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변수정

가족 기능 및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김은정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이윤경

세대갈등 및 생애주기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연령·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남궁은하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과 함의

진화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변동 현상을 둘러싼 국민의 인식과 관련 가치관에 대한 심층 파악을 통해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8,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TAPI)을 활용하여 총 130명의 조사원에 의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20년 9월 11일~10월 22일이며, 전국 17개 사도의 801개 집계구에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1) 가족 및 가족 가치관과 관련하여 가족기능, 결혼과 가족 형성·구성에 대한 가치관, 2) 연령규범 및 세대 가치관과 관련하여 연령집단 기준에 대한 가치관, 연령규범과 연령차별 인식,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3)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U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IRB 승인(제2020-63호)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번 호 이달의 초점, '가족, 세대,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에 게재된 원고들은 이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¹⁾



Social Attitudes Toward Family Formation In and Outside of Marriage in Korea

변수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은 결혼제도 안과 밖의 가족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에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를 이용하여 성인 남녀의 동거,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 등 변화하고 있는 결혼과 가족형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 남녀의 동거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65.7%가 동의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동거는 36.9%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결혼으로 이어지는 결혼의 전 단계로서의 동거에 대한 수용이 높았다. 이와 동시에 성인 남녀의 결합을 결혼제도로만 한정 짓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며, 동거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결혼 관련 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20~30대를 중심으로 더 두드러지게 높았다.

한편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 편견이 많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동 보호 차원에서 결혼의 대안적 제도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 이 글은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의 제5장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였다.

1. 들어가며

과거에는 한 인간이 성장하면 결혼하는 것이 생애 과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이 선택인 것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 통계청의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야 한다’가 51.2%,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1.4%, ‘하지 말아야 한다’는 4.4%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보면, 남성은 ‘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은 35.4%인 반면, 여성은 ‘해야 한다’는 응답이 44.4%,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7.3%였다. 즉, 여성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결혼을 당위로 여기는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는 남성의 견해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미혼 여성의 경우는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이 무려 62.4%로 동일 응답에 대한 미혼 남성의 48.0%보다 14.4%포인트 높아(통계청, 2020),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생각이 미혼, 그리고 여성 사이에서 더 높을 경향을 보인다. 결혼의 당위성이 감소하는 만큼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녀가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45.9%에서 2020년에는 59.7%까지 증가했다(통계청, 2020). 결혼이 선택인 경향은 지속되고,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만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 대신 보다 자유로운 관계맺음에 대해 개방적으로 변화하

고 있다.

결혼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아이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생각하게 되는 존재였지만,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거나 기르는 것을 실천하는 예들이 알려지면서 아이를 갖는 것이 반드시 결혼을 한 사람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관련 인식에서도 그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2년 22.4%에서 2016년 24.2%, 그리고 2020년에는 30.7%로 증가해 우리 사회에 결혼과 자녀를 갖는 것을 별개로 보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0). 그러나 반대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69.3%(통계청, 2020)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 사이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처럼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과 결혼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가 성장하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의 결과 자료를 활용해 결혼과 동거, 관련 제도, 그리고 결혼을 동반하지 않은 가족형성에 대한 생각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

해 결혼과 동거 및 가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이에 대한 연령 및 성별 등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여 향후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결혼 전제 여부에 따른 동거에 대한 태도

반드시 결혼하지 않더라도 남녀가 동거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와 그렇지 않은 동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결혼을 전

제로 성인 여성과 남성은 함께 살아도 된다’에 대한 견해에 53.5%는 ‘대체로 동의한다’, 12.2%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65.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 차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이였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20~40대에서는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표 1. 결혼을 전제로 한 성인 남녀의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계(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34.3	5.9	28.4	65.7	53.5	12.2	100.0(8,000)	
성별($\chi^2=14.909^{**}$)								
남성	32.7	5.8	26.8	67.3	54.0	13.3	100.0(3,965)	
여성	35.9	6.0	29.9	64.1	52.9	11.2	100.0(4,035)	
연령($\chi^2=499.749^{***}$)								
19~29세	20.7	3.2	17.4	79.3	60.5	18.8	100.0(1,360)	
30~39세	23.5	2.5	21.0	76.5	59.6	16.9	100.0(1,279)	
40~49세	29.7	4.1	25.6	70.3	57.9	12.4	100.0(1,533)	
50~59세	39.3	6.6	32.7	60.7	51.4	9.3	100.0(1,590)	
60~69세	45.7	8.8	36.9	54.3	46.8	7.5	100.0(1,204)	
70~79세	49.9	11.1	38.8	50.1	42.3	7.8	100.0(675)	
80세 이상	54.2	13.2	41.0	45.8	37.9	7.8	100.0(360)	
혼인 상태($\chi^2=196.786^{***}$)								
미혼	22.2	3.2	19.0	77.8	59.6	18.2	100.0(1,886)	
기혼	38.0	6.7	31.3	62.0	51.6	10.4	100.0(6,114)	

주: 1) ***p < .001

2) 혼인 상태 '기혼'은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사실혼, 이혼, 사별 포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29>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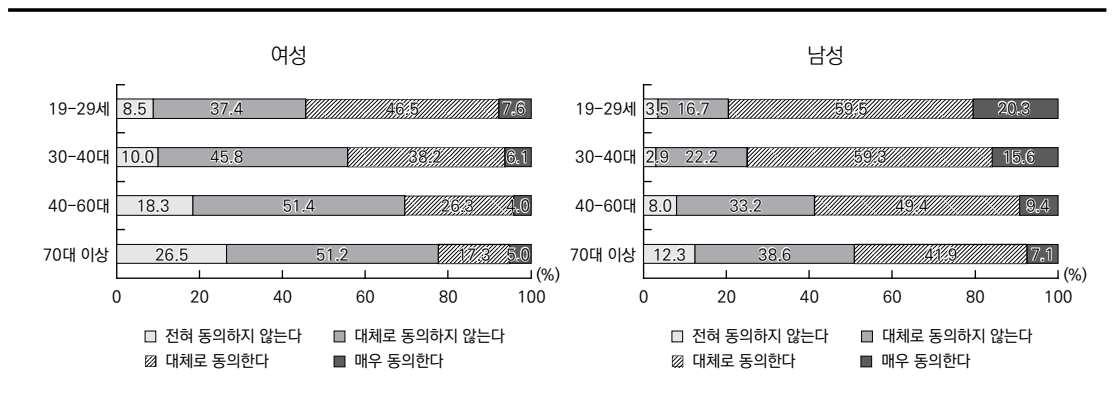
50대 연령에서는 60% 이상, 60대와 70대는 50% 이상이 동의하였고, 80대 이상에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대에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거의 80%에 이르는 수준으로 매우 높은 동의 경향을 보이다가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게 감소한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서부터 이 견해에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진다. 그럼에도 이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인 연령대는 오직 80대 이상으로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령 범위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은 77.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62.0%가 동의하는 기혼 집단보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 연령과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연령이 낮은 집단에는 미혼인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연령과 혼인 상태 구분은 약간의 중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대해 더욱 큰 차이를 보인 연령 구분을 이용해 성별마다의 연령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전 연령에서 높은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여성은 2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은 집단별로 과반을 차지하는 경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 중 70대 이상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49%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에 이른다. 그리고 20대 남성은 결혼을

그림 1. 성별·연령별 결혼을 전제로 한 성인 남녀의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 80%가량이 동의하고 그 중 약 20%는 적극 동의하는 견해를 보여 남녀 모든 세대 중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47.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6.1%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63.1%)이 동의하는 비율(3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서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높았던 결과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태도를 보면,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견해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 특성에 따라서는 20대에서만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연령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서도

표 2. 결혼과 무관한 성인 남녀의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계(명)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63.1	16.1	47.0	36.9	31.8	5.2	100.0(8,000)
성별($\chi^2=20.195^{***}$)							
남성	61.3	14.4	46.8	38.7	33.2	5.5	100.0(3,965)
여성	64.8	17.7	47.1	35.2	30.3	4.8	100.0(4,035)
연령($\chi^2=518.33^{***}$)							
19~29세	49.3	7.5	41.8	50.7	43.4	7.4	100.0(1,360)
30~39세	52.2	9.8	42.5	47.8	42.2	5.6	100.0(1,279)
40~49세	60.6	12.8	47.8	39.4	33.7	5.7	100.0(1,533)
50~59세	67.8	18.1	49.7	32.2	27.9	4.3	100.0(1,590)
60~69세	74.4	22.3	52.1	25.6	22.1	3.5	100.0(1,204)
70~79세	76.9	27.7	49.2	23.1	18.5	4.6	100.0(675)
80세 이상	79.6	33.5	46.1	20.4	16.8	3.6	100.0(360)
혼인 상태($\chi^2=247.097^{***}$)							
미혼	49.3	7.8	41.4	50.7	43.6	7.1	100.0(1,886)
기혼	67.3	18.6	48.7	32.7	28.1	4.6	100.0(6,114)

주: 1) ***p < .001

2) 혼인 상태 '기혼'은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사실혼, 이혼, 사별 포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28> 재구성.

미혼과 기혼 사이의 견해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미혼은 이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50.7%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20대에서 나타난 경향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반면, 기혼의 경우는 동의하는 비율이 32.7%로 기혼과 미혼 사이에는 18%포인트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인 이성 간의 동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 연령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별 견해 분포가 앞서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서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여성 20대의 견해에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나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서보다 동의 비율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모든 세대가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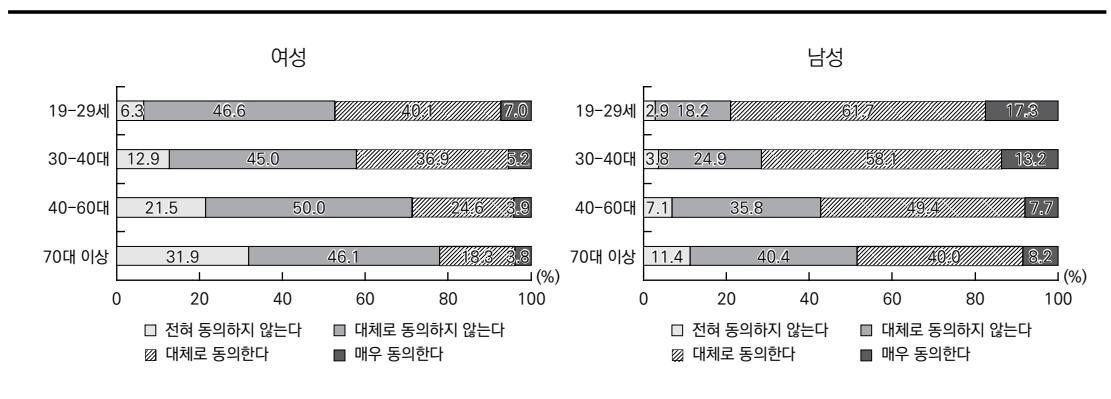
3. 결혼·동거 제도에 대한 태도

결혼이 아닌 동거를 택하는 것,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수용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앞서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결혼과 대안적 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성인의 결합 방식은 혼인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최근에는 동거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모하고, 실제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하는 가능성에 따라 전통적인 혼인제도의 대안적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 왔던 혼인제도와 대안적 제도에 대한 직접 질문을 통해 결혼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현재의 혼인제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이성 간의 결합 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이다’에 대한 태도

그림 2. 성별·연령별 결혼과 무관한 성인 남녀의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를 먼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이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60.2%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동의한다’는 비율이 과반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견해에 대한 성별 특성 차이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응답 비율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20대에서는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7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나 50대 이하와 60대 이상 연령 사이에 현재 혼인제도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의 혼인제도를 시대에 뒤쳐진 제도라고 보는 견해는 기혼(55.7%)보다는 미혼(74.6%)인 경우 그 비율이 20%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나, 앞으로 혼인제도에 들어갈지 아닐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현재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을 통해서만 이성 둘의 결합을 법적으로

표 3. ‘이성 간의 결합 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특성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계(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39.8	5.0	34.9	60.2	53.7	6.4	100.0(8,000)
성별($\chi^2=3.441$)							
남성	38.9	5.0	33.9	61.1	54.6	6.5	100.0(3,965)
여성	40.8	5.0	35.8	59.2	52.8	6.4	100.0(4,035)
연령($\chi^2=505.035^{***}$)							
19~29세	24.9	2.5	22.4	75.1	64.5	10.6	100.0(1,360)
30~39세	28.9	2.5	26.5	71.1	63.7	7.4	100.0(1,279)
40~49세	35.2	2.8	32.3	64.8	57.7	7.1	100.0(1,533)
50~59세	45.4	5.4	40.0	54.6	49.7	4.9	100.0(1,590)
60~69세	52.0	7.7	44.3	48.0	43.8	4.2	100.0(1,204)
70~79세	57.0	9.8	47.2	43.0	39.1	3.9	100.0(675)
80세 이상	57.7	12.5	45.2	42.3	39.1	3.1	100.0(360)
혼인 상태($\chi^2=226.364^{***}$)							
미혼	25.4	2.6	22.8	74.6	65.2	9.4	100.0(1,886)
기혼	44.3	5.7	38.6	55.7	50.2	5.5	100.0(6,114)

주: 1) ***p < .001

2) 혼인 상태 '기혼'은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사실혼, 이혼, 사별 포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28> 재구성.

표 4.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를 제도로 보호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태도			태도			계(명)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	
전체	38.1	4.7	33.4	61.9	55.5	6.4	100.0(8,000)
성별($\chi^2=6.408$)							
남성	38.9	4.8	34.1	61.1	54.3	6.8	100.0(3,965)
여성	37.3	4.5	32.8	62.7	56.8	5.9	100.0(4,035)
연령($\chi^2=275.086^{***}$)							
19~29세	27.0	3.0	24.0	73.0	63.3	9.7	100.0(1,360)
30~39세	28.8	2.7	26.1	71.2	63.8	7.4	100.0(1,279)
40~49세	37.0	4.1	32.9	63.0	56.1	6.9	100.0(1,533)
50~59세	41.1	4.6	36.5	58.9	53.7	5.2	100.0(1,590)
60~69세	48.2	6.1	42.1	51.8	47.2	4.6	100.0(1,204)
70~79세	48.3	8.4	39.9	51.7	47.6	4.1	100.0(675)
80세 이상	51.5	9.1	42.4	48.5	45.0	3.5	100.0(360)
혼인 상태($\chi^2=133.511^{***}$)							
미혼	27.2	2.8	24.4	72.8	64.1	8.7	100.0(1,886)
기혼	41.5	5.3	36.2	58.5	52.9	5.6	100.0(6,114)

주: 1) ***p < .001

2) 혼인 상태 '기혼'은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사실혼, 이혼, 사별 포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42) 재구성.

인정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서구의 여러 국가는 함께 사는 동반자를 등록하는 제도를 통해 응급 시 보호자 역할을 하거나, 서로 돌봄 및 보호, 또는 기본적인 지원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해외 국가의 제도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도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혼인제도가 시대에 뒤쳐진 제도인가에 대한 태도에서와 매우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 대안적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61.9%로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견해에 대해서도 역시 연령이 상승하면서 반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8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의 비율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대안적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결혼제도가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기혼보다는 미혼에서 더 높았던 것과 같이 동거 관계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미혼인 경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기혼보다 결혼의 대안적

제도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혼인제도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아지거나, 성인 남녀의 결합에 대한 대안적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증가한다고 해서 결혼 이외의 남녀 결합을 당연하게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가족이 다양해지는 만큼 어느 범위까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현재는 결혼을 대신하는 제도가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성인 남녀의 결합이나 관련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과 그 결합을 가족으

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성인 남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4.1%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해 현재의 혼인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거나 (60.2%) 대안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61.9%)하는 비율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에 대한 견해에서 20대와 30대는 동의하는 비율이 70% 이상이었던 결과와 비교

표 5.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정도

(단위: %)

특성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가족이라 생각한다			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5.9	6.8	39.1	54.1	48.9	5.2	100.0(8,000)
성별($\chi^2=2.805$)							
남성	45.2	6.7	38.5	54.8	49.2	5.6	100.0(3,965)
여성	46.6	6.8	39.8	53.4	48.5	4.9	100.0(4,035)
연령($\chi^2=216.137^{***}$)							
19~29세	37.9	4.5	33.3	62.1	55.6	6.6	100.0(1,360)
30~39세	40.5	3.8	36.7	59.5	53.2	6.3	100.0(1,279)
40~49세	42.0	5.9	36.2	58.0	51.2	6.7	100.0(1,533)
50~59세	47.9	6.6	41.3	52.1	48.1	4.0	100.0(1,590)
60~69세	52.0	7.9	44.2	48.0	44.0	4.0	100.0(1,204)
70~79세	57.9	13.2	44.7	42.1	38.8	3.3	100.0(675)
80세 이상	59.8	14.1	45.7	40.2	36.9	3.3	100.0(360)
혼인 상태($\chi^2=85.239^{***}$)							
미혼	37.3	3.9	33.4	62.7	56.2	6.5	100.0(1,886)
기혼	48.5	7.6	40.9	51.5	46.6	4.9	100.0(6,114)

주: 1) ***p < .001

2) 혼인 상태 '기혼'은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사실혼, 이혼, 사별 포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38> 재구성.

하면, 이 견해에 대해서는 약 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혼인 상태별로 보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성인 남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미혼이 62.7%, 기혼이 51.5%로 나타나 미혼의 결과는 미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20~30대의 결과와 유사하다.

4.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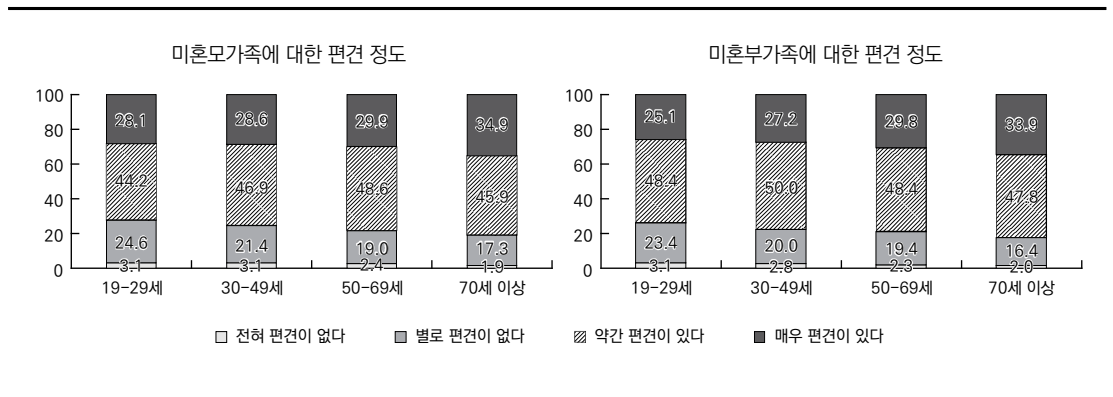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결혼 다음에 이행하는 단계로 인식하지만,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에 대한 생각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앞서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유명인이 비혼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공개하면서 결혼이행 없이 이루어지는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물론 이 경우는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

아 더욱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과거에는 미혼인 상태로 혼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현재도 쉬운 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도 하다. 그 이유는 결혼이행 없이 이루어지는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시각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오랫동안 터부시되던 사회이지만, 현재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미혼인 남성과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의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미혼 여성, 또는 미혼 남성이 아이를 혼자 기르는

그림 3. 미혼모가족과 미혼부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정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가족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비율이 전 연령에서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50~60대는 편견이 있다는 응답이 80% 가까이 이르고 70대 이상에서는 80%를 넘어서는 수준을 보였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에 편견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는데,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와 결혼한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았다. 아이에 대한 지원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73.1%로 높게 나타났다. 이 응답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고 모두 아이에 대한 지원이 동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편견이 남아 있는 사회이지만, 태어난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5. 나가며

한국 사회의 결혼이나 가족형성에 관한 생각

표 6.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지원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	계(명)
전체	15.9	73.1	11.0	100.0(8,000)
성별				
남성	15.9	73.1	11.0	100.0(3,965)
여성	15.9	73.1	11.0	100.0(4,035)
연령				
19~29세	15.4	73.6	11.0	100.0(1,360)
30~39세	16.1	74.3	9.6	100.0(1,279)
40~49세	17.5	71.5	10.9	100.0(1,533)
50~59세	15.0	72.9	12.1	100.0(1,590)
60~69세	15.2	74.1	10.7	100.0(1,204)
70~79세	15.0	74.4	10.6	100.0(675)
80세 이상	18.3	68.8	12.9	100.0(360)
혼인 상태				
미혼	15.4	73.9	10.8	100.0(1,886)
기혼	16.1	72.9	11.1	100.0(6,114)

주: 1) 본 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χ^2 값이 없어 제시하지 않음.
 2) 혼인 상태 '기혼'은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사실혼, 이혼, 사별 포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37> 재구성.

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결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이 증가하였고, 실제로 혼인율은 감소하였다. 반면, 동거에 대한 개방성은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동거가 증가하였는지를 확인할 분명한 자료는 부재하다. 결혼에 대한 생각 변화와 달리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폭은 결혼에 대한 생각 변화만큼 크지 않다. 실제로 결혼 관계 이외에서 출생한 아이는 2019년 총출생아의 2.3%(302,676명 중 6,974명)(통계청, 2021)로 그 비율이 낮아 한국 사회의 결혼과 아이를 갖는 것의 연결고리는 아직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분리된 출산을 실천한 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에 대한 가치관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와 그렇지 않은 동거에 대한 견해를 알아본 결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 65.7%가 동의한 반면, 결혼과 무관한 동거에 대해 알아본 결과에서는 36.9%만이 동의한 것이다. 동거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20~30대 연령층에서도 동거에 대한 태도는 결혼 전제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동거에 대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이후 결혼을 할 두 사람이 결혼의 전 단계로 생활하는 동거가 수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에서 현재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성인이

함께 산다는 것은 제도 밖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현재 혼인제도만으로 성인 간 결합에 있어 단일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결혼의 대안적 제도가 없는 상황에 대해 시대적으로 뒤쳐진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과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 결혼제도가 아니더라도 동반자로 인정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 혼인제도에 진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도에 대한 보완 욕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제도에서는 법적 혼인을 하는 것이 남녀가 '가족'이 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도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절반 이상이다. 물론 60대 이상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약화되지만 앞으로 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서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의 대상만 가족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족을 바라보는 생각은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제도권에 들어온 가족만을 보호·지원하는 시스템에서 탈피해 법적 가족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족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최근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 과제로 '(가칭)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추진이 포함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20). 이러한 제도 마련을 통해 이미 일상에서 실천되

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편견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편견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이가 크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견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혼인제도 속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은 변화했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편견이 여전하다는 판단의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의 편견 수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의 인식 변화를 체감하면서 변할 수도 있고 제도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혼 밖 가족형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우리 사회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관련 제도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들로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동거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미혼이나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대안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이윤경, 변수정, 김은정, 진화영, 주보혜, 남궁은하, 김주현, 정윤경.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2020). 2021-202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 통계청. (2020. 11. 18.).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24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1. 2. 5. 인출.
- 통계청. (2021).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시도/법적혼인상태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6) (주제별통계)인구)인구동향조사}출생}시도/법적혼인상태별 출생)에서 2021. 2. 9. 인출.

Social Attitudes Toward Family Formation In and Outside of Marriage in Korea

Byoun, Soo-J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people's attitudes toward family formation in and outside of marriage. Using data from the "2020 Survey of Public Perceptions and Values toward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is study looks at people's perceptions of the changing patterns of marriage and family formation—living together and raising children without marriage, for example—and highlights the need for alternatives to legal marriage.

A cohabiting relationship between an adult man and an adult woman outside of marriage has been gaining increasing social acceptance. However, whereas 65.7% of respondents found cohabitation acceptable as a prelude to marriage, only 36.9% thought it acceptable for a couple to live together without intending to get married. This shows that cohabitation is more often accepted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 Many respondents also thought the current institution of marriage is behind the times and felt the need for a system to protect cohabiting couples. These were sentiments widely shared especially among those in their 20's and 30's, who are more likely to benefit from marriage-related systems in the future.

The majority of people responded that there were still many prejudices in Korean society about having and raising children without getting married. Nevertheless, there was a consensus that support for children should be equally provid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parents are married. In terms of protecting children born outside of marriage, the need for alternatives to marriage needs to be emphasized. It is time to consider making institutional changes in accord with changing society.